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8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헬스장 하루 썼는데 '1개월' 간주?...공정위, 체인형 체육시설 20여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02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소환 조사...지역 체육계서 1,100만 원 수수 혐의**

kbcNEWS 임소영 기자

03

**“생리 끊겨야 정상?”...여성 스포츠계 잘못된 편견, 붕괴하고 있다**

스포츠경향 김세훈 기자

04

**선수들의 '반칙'이 오히려 권장되는 운동 대회?**

BBCNEWS코리아

05

**맨날 말로만 다들 "한국야구 위기에요..."→'어른들'이 진짜 문제다**

스포츠서울 박연준 기자

## 헬스장 하루 썼는데 '1개월' 간주?...공정위, 체인형 체육시설 20여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2025.10.19. 12:00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회원권 환불 시 기존 이용 요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의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연습장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용 과정에서 계약 해지나 위약금 산정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많이 진행된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헬스장 16곳, 필라테스 2곳, 요가 2곳)의 지난해 계약서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이번에 시정 조치된 불공정 약관 유형은 크게 4가지였다. 우선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행사 기간이나 이벤트 가격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며 “계속 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일을 이용해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했다. 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받을 때도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등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 실제 이용 기간보다 과도하게 이용료 산정이 이뤄지고,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약관들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시설 내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원인에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업체들은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회원권 해지 상담 가능 날짜와 시간을 특정 시각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 조치됐다.

##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소환 조사...지역 체육계서 1,100만 원 수수 혐의

kbcNEWS 임소영 기자

2025-10-19 10:28:15

사진=연합뉴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9시 45분쯤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서 잘 설명하고 나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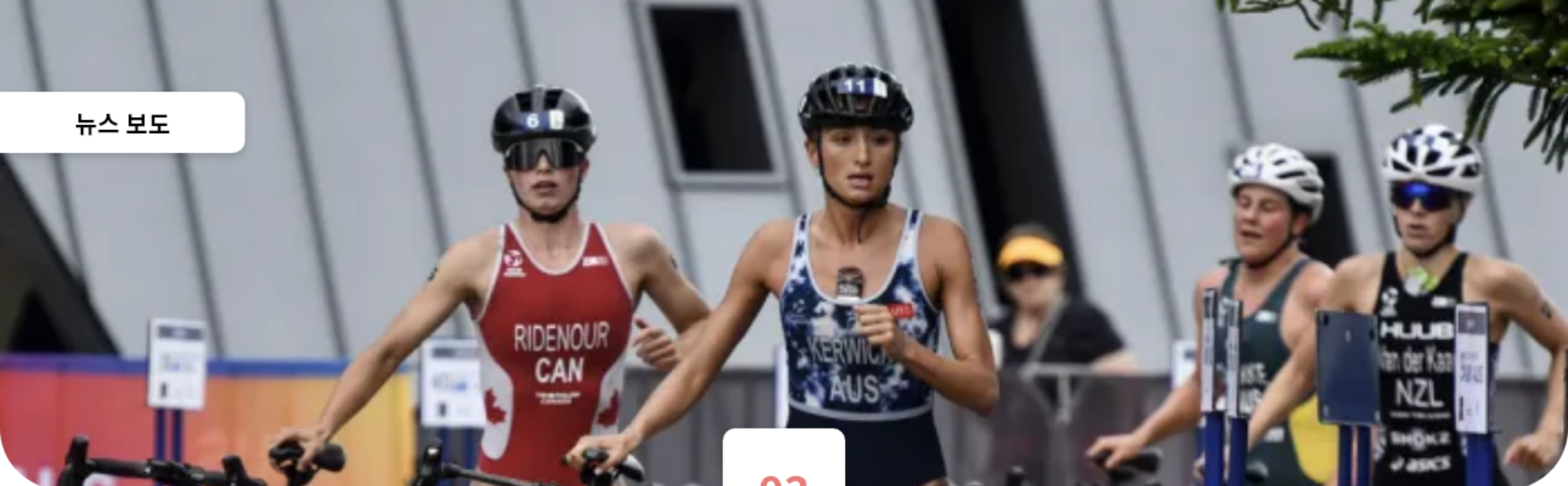
경찰은 윤 체육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사전에 250만 원씩 돈을 모았으며, 당일 일본 출장길에 오르는 김 지사에게 여비 명목으로 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스포츠연맹회장을 만나 이들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김 지사에게 주기 위해 사전에 200만 원씩 돈을 모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언론 등에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03

## “생리 끊겨야 정상?”…여성 스포츠계 잘못된 편견, 붕괴하고 있다

스포츠경향 김세훈 기자

2025.10.13 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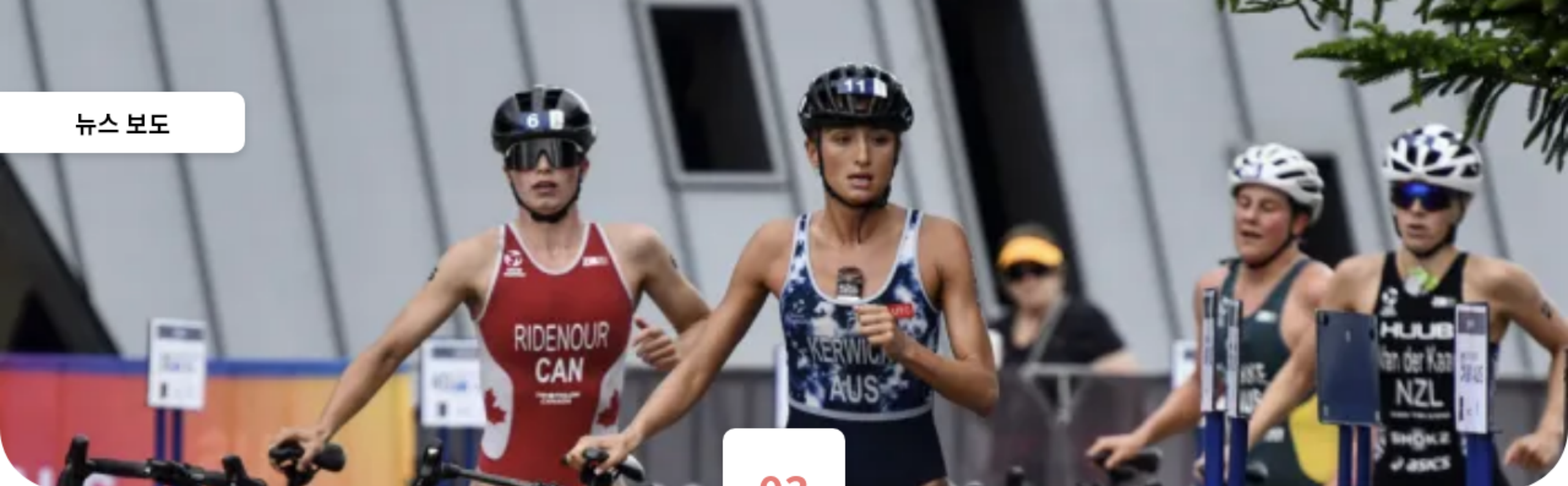
사진=게티이미지

“엘리트 선수라면 생리가 없어도 괜찮다.”

미국 사이클리스트 베로니카 유어스(31)는 2022년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의사가 던진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호르몬 수치가 거의 바닥인데도, 의료진은 이를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12일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여성이 생리를 멈출 때가 피트니스의 정점’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회상했다.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3년 부상으로 시즌을 접은 뒤, 회복 과정에서 발 뒤꿈치가 부러졌고 골밀도 검사를 받자 결과는 ‘골다공증 직전’이었다. 그는 “생리를 멈춘 것은 몸이 경고를 보낸 신호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영국 여성 선수 769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여성선수건강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36%가 생리 이상이나 무월경을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긴 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겼다. 심지어 30%는 의료진에게서 “활동량이 많으니 생리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오레코 연구소 케리 맥골리 교수는 “지금도 선수들이 ‘생리가 있으면 훈련이 부족한 거야’라는 말을 듣는다”며 “누구도 그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저 성과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생리 중단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RED-S(운동으로 인한 상대적 에너지 결핍 증후군)’의 대표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섭취 에너지보다 소모 에너지가 많을 때 나타나는 RED-S는 골밀도 저하, 피로, 철분 결핍, 회복력 감소, 수면장애, 심리적 불안까지 초래한다. 장기화될 경우 생식기능 저하와 조기 골다공증 위험도 커진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생리가 중단된 고강도 러너들은 훈련 결손일이 늘고 부상 빈도와 피로감이 증가했다. 생리주기를 무시한 ‘남성 중심형 훈련 시스템’이 여성 선수의 커리어를 단축시키는 셈이다.



## 03

미국여자축구대표팀(USWNT)은 2019년 월드컵 우승 당시부터 생리주기 추적을 훈련 관리에 도입했다. 첼시FC 여성팀 역시 에마 헤이스 감독이 주도해 선수별 주기에 따라 훈련을 세분화했다. 이 접근법은 현재 WNBA와 NWSL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국제연맹도 RED-S와 호르몬 건강을 선수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종목은 남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훈련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맥콜리는 “여성 호르몬 변화를 변수로 삼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과학은 늘 ‘저항이 적은 길’을 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투르 드 프랑스 팜에서 준우승한 네덜란드의 데미 폴러링은 기자들의 “체중을 더 줄였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단호히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완벽한 균형 속에서 싸워야 한다”며 “두 해만 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잘하고 싶다면 내 몸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동료 세드린 케르바울도 “우리는 운동선수이기 전에 여성이다. 생리를 통제하거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은 RED-S와 골밀도 의무검사를 추진 중이며, 각국 선수단에서도 생리주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수의 생리 주기는 건강의 ‘생체 신호’이자 무료로 주어진 건강 지표”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 선수들의 몸은 남성 기준의 잣대 속에서 ‘관리’되고 있다. 영양학자 르네 맥그리거는 “체지방률 21%가 생리 유지의 최소 기준이지만, 많은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 명목으로 그 이하로 밀어붙인다”며 “여전히 ‘여성은 말라야 빠르다’는 신화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어스는 아직 완전히 생리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골밀도는 회복 중이다. 그는 “호르몬과 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의사도 ‘언제 회복될지’ 답을 모른다”며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장 오래간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하고 싶다. 누구나 그렇다. 하지만 몸을 잃어버리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 선수들의 '반칙'이 오히려 권장되는 운동 대회?

BBCNEWS코리아

2025.10.16

사진=게티이미지

수십 년간 경기력 향상 약물은 스포츠계를 질게 드리운 그림자였다.

세계 챔피언 중에는 이후 금지 약물 사용 이력이 밝혀지며 메달과 명예를 잃은 이들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약물 복용을 묵인해주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장려하는 대회가 있다면 어떨까.

'인핸스드 게임즈'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내년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인핸스드 게임즈'가 최초로 다종목 대회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약물 검사도 없으니 제한 없는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셈이다.

이 대회를 구상한 호주 출신 사업가 아론 드수자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기업가 피터 틸 등이 참여한 벤처 캐피털 펀드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걸고 세계 신기록을 세울 기회로 소개되었다.

조직위는 그리스 출신 수영선수 크리스티안 골로메에브가 2009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50m 자유형 기록을 경신했다고 주장했으나, '세계수영연맹'의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인핸스드 게임즈가 실제로 개최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그저 의도적인 도발 혹은 홍보용 퍼포먼스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미 몇몇 수영 선수들은 출전 의사를 밝혔다.

그 중에는 벤 프라우드도 있다. 그는 이 논란의 대회에 출전하는 첫 번째 영국 선수다.

프라우드는 BBC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참가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3년 동안 우승해야 받을 상금을 이 대회 한 번으로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 대회에 많은 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육상연맹'의 로드 코 회장은 이러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면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장기적인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대회는 결국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프로젝트"라며 규탄했다.

아울러 인헨스드 게임즈 공식 웹사이트에서 '테스토스테론 대체 요법' 주사제 등 여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주사제의 잠재적 부작용으로는 기분 변화, 우울증, 공격성 증가, 전립선 비대 등이 있다.

프라우드 선수 또한 운동 능력 향상 약물 사용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약물에는 엄청난 사회적 낙인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무언가를 복용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제 선택입니다."

'영국수영협회'는 SNS 성명을 통해 "프라우드 선수의 인헨스드 게임즈 출전 결정 소식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우리 협회와 파트너들은 다 함께 깨끗한 스포츠의 가치 및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며, 프라우드 선수의 참가 결정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영국스포츠협회'는 자국 수영협회와 협력하여 "긴급히 프라우드 선수의 공공 지원금 수령 자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반도핑 규정 위반은 영국 스포츠 기금 지원 정책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핸스드 게임즈 측은 내년엔 출전하는 선수 전원은 "경기 전 광범위한 의료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가한 선수들은 "최상위 수준의 출전료 및 상금에 더불어 신기록 수립 시 최대 일곱 자릿수에 달하는 추가 보너스" 등 제대로 된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핸스드 게임즈 웹사이트에는 "우리는 선수들이 각 분야 최고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프라우드는 BBC '라디오 5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수년간 고민해왔다"고 토로했다.

"사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은 은퇴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맨날 말로만 다들 "한국야구 위기에요..."→'어른들'이 진짜 문제다

스포츠서울 박연준 기자

2025-09-26 00:02

사진=스포츠서울 DB

야구인과 '야구 발전'을 놓고 얘기를 나누면, 꼭 한마디씩 하는 문장 중 하나다. KBO리그의 인기와 흥행은 역대급으로 뜨겁다. 아마야구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야구 행정가, 정치권과 협회가 모두 문제를 알고도 '말뿐인 대책'만 반복한다. 못 되었다면 못 된 어른의 모습이다.

이달 초 열린 U-18 야구월드컵에서 한국은 4위에 그쳤다. 이어 아시아야구선수권(U-23) 대표팀은 슈퍼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지만, 24일 대만과 예선에서 0-10 콜드패를 당했다. 아시아 강국을 가리는 무대인데,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국내 프로야구가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쓰며 인기를 구가하는 것과 달리, 아마 무대에서 경쟁력이 점점 사라진다. 이러다간 성인 대표팀도 경쟁에서 밀린다. '위기'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대학 진학 과정의 '학업 성적 25% 규정'이다. '인(in) 서울' 주요 대학들은 내신 성적을 일정 비율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교과 성적이 부족하면 진학이 어렵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휴식 날'이 없다는 것. 주말에는 주말리그를, 평일에는 오전-오후 내내 수업을 듣고 야간 훈련을 치른다. 아무리 강철 체력(?)으로 불리는 고교 선수여도, 성장기 선수들이다. 쉬지도 못한 채 운동과 공부를 모두 떠안는다. 현재 고교 야구 지도자들 사이에서 "언론과 회의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도, 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바뀌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주말리그 제도는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선수들이 쉴 틈 없이 평일 수업과 주말 경기를 병행해야 하는 '모순'을 낳았다. 정작 중요한 '휴식권'은 고려되지 않는 셈. 형식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으로는 선수들의 몸을 더 혹사시키는 구조다.

특히 명문 고교팀을 제외한 상당수 학교는 자체 야구장을 갖추지 못했다. 외부 구장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가면 운동 시작 시간이 이미 5시다. 야간조명 시설이 없어 훈련을 2시간 이상 이행하기 어렵다. 부족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작은 실내 연습장에서 훈련을 이어가지만, 투수·타격 훈련 모두 한계가 뚜렷하다.

한 고교 지도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막자는 게 아니다. 하교 후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 결국 악순환만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결국 학습권을 보장하려다 운동권마저 앗아가 버린 셈이다.

KBO 허구연 총재는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아마야구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KBSA) 양해영 회장 역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실질적인 ‘행동’은 아직이다. KBO든, KBSA든 정부 지자체와 ‘스몰 토크’라도 이 주제를 나눈 곳이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정치권도 문제다. 아이들에게 공부와 운동, 두 가지를 모두 강요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인프라와 제도 개선은 미룬다. 당장 걸으려면 이쁜 그림을 원한다. ‘한국야구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속은 타들어 간다. 이를 왜 모른척하나. 학습권을 존중하되, 운동권 역시 지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구장, 합리적 일정이다.

올시즌 KBO리그는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기반을 떠받치는 아마야구는 그대로라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국야구의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인기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어른들의 변화 없이는 오늘도 제자리걸음인 한국야구다.



##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